

간호 현장의 기독교 세계관

백석문화대학교 간호학과 원효진

간호는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인 측면을 모두 돌보아야하는 전인적 돌봄의 행위이며, 동시에 질병과 고통을 예방하고 대처하면서 이러한 것들의 경험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삶의 의미란 개인이 경험하는 것에 대한 특정한 이유를 말하는 것 또는 인간의 참된 본질을 실현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즉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는 ‘어떤 것이 가치있는 삶인가’에 대한 답으로 삶의 목적 또는 인간의 존재 목적을 의미한다. 개인이 삶의 의미를 찾게 되면 독특한 정체감을 갖게 되며, 지속적으로 삶의 의미를 추구하게 되면 삶의 방식과 행동양식을 결정짓게 하는 힘을 얻게 된다. 그러나 자신의 삶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찾지 못하게 되면 무기력, 무관심, 우울과 절망 등의 공허감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삶의 의미는 고통 받는 이를 돌보는 간호사에게는 정신건강의 핵심이 될 수 있으며, 삶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이들에게는 지나온 인생을 돌이켜보며 현실의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남은 삶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찾도록 돕는 일이 된다. 이렇듯 모든 인간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자 하는 일은 인간실존의 근본이 되며, 인간 존재의 의미와 가치의 문제에 직면하는 현 사회에서 삶의 의미는 상담자와 내담자간에 궁극적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효과적인 통로가 될 수 있다. 자심이 누구이고 어떠한 일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통찰과 자아정체감을 가지고 삶에 대한 뚜렷한 목적과 의미를 깨닫게 되면 자신의 가치를 인지하며 목표지향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겠다.

특히 기독교간호사는 절대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한 자아성찰이 지속되어야 하고 환자와 가족 그리고 주변 모든 의료인과 축진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환자간호와 직장에서의 상호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기독교적인 성실성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할 책임이 있다. 기독교간호의 독특성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반응으로 최적의 건강을 도모하고 고통과 위기에 처한 대상자에게 안위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인적 돌봄의 사역이다. 나아가서 간호사 자신이 인간애를 향한 분명한 간호철학을 가지고 고통 받는 영혼을 따뜻하게 품어 안을 수 있는 선한 마음과 치료적 관계에서 고결한 삶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인식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영적 존재로서 기본적인 영적 요구를 가진다. 영적 요구는 하나님과 역동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세우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사랑받고 사랑하려는 것, 용서를 경험하고 용서를 베풀려는 것, 인생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소망을 가지려는 것이다.

영적간호란 개인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으며, 절대자와의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어 영적 안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요소에 반응하는 적극적인 돌봄이나 보살핌의 행위이다. 영적간호의 목적은 영적요구를 충족시켜 영적 고통을 최대한 줄이고 영적안녕을 도모하는 것으로 영적사정, 영적간호중재, 영적평가를 통한 전인적인 간호활동이다. 결국 영적간호는 영적요구를 전제로 설며오디며, 간호사는 자신의 종교적 입장을 초월하여 하나님, 자신, 이웃, 환경과의 올바른 관계를 인식하고 대상자의 영적요구를 민감히 받아들여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간호사 자신의 철학과 영적간호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이처럼 영적간호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공감하는 분위

기가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실무지침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근거중심실무의 영적간호가 수행되지 않고 있다.

기독교적 영적간호는 인간이 믿음을 통한 은혜로 하나님과 역동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세우고 유지하도록 돕는 일에 중점을 둔다. 따라서 환자와 간호사의 치유적 관계에서는 신앙과 영적 돌봄의 중요성이 강조되므로, 이를 위해서 말기환자를 돌보는 기독교간호사는 매순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와 간구를 통해, 소명의식과 참간호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야 하겠다. 기독교간호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로서, 사명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면 간호에 대한 분명한 목표와 철학을 가지게 되고, 죽음의 위기가운데 있는 말기환자의 가장 높은 영적요구를 해결해주고 평안히 임종할 수 있게 하는 영적 간호를 통해 진정한 돌봄의 의미와 가치를 확립하게 될 것이다.

인간 삶의 극적인 순간들인 출생, 질병, 고통, 수술, 신체장애, 노화, 임종, 죽음 등에 직면해 있는 인간들이 모인 의료현장은 기독교의료인이 위기에 처해있는 많은 대상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위치와 자격으로 많은 기회와 상황들 속에 개방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위기 중에 있는 간호의 대상인 인간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가장 두드러지게 달라지는 것은 인간의 본질에 관한 것이다. 성경은 인간을 단순히 육체와 정신을 가진 존재로 보지 않고 육체와 정신 이외에 '영'이라는 부분을 가진 존재로 인식한다. 태초에 신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먼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는 성서 기록이 있다. 여기서 '생령'이라고 한 말은 살아있는 영이라는 뜻이다. '영'이란 말은 육체에 생명을 불어 넣어주는 생명의 숨결과 같은 것으로 인간에 내재하는 하나님의 모상을 나타내며,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영적 요구를 가지는데, 이 요구가 하나님에 의해 충족되지 않으면 인간의 삶은 결핍 증상을 나타낸다. 인간에게서 표현되는 영적 요구는 대체로 자기 존재에 관한 의문이나, 자기에게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의미를 알고 싶은 것 등이다. 질병으로 자신에게 불구나 죽음이 올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 그런 고통이 왜 자기에게 그러한 시기에 왔는가를 알고 싶어 하며 건강할 때에는 해야 할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깊이 생각지 않고 지나쳐 버린 인간존재의 근본에 관한 의문들이 질병 중에 크게 제기된다. 영적 측면에서 볼 때 질병은 영적 위기를 초래한다고 말할 수 있다.

간호 실무의 경우 대부분의 간호사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간호는 신체 생리적인 것이며, 사회 심리적 간호나 영적 간호는 시간이 나면 하거나 성직자들이 영역 또는 죽음을 당면한 환자의 종교적 과제라고만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간호사는 간호 현장에서 고통 중에 있는 환자에게 도움을 주는 몇 사람들 중의 하나이며 환자가 도움을 청했을 때 바로 그 현장에 있는 유일한 사람일 수 있다.

신앙은 주로 believe, trust, hope 라는 동사로 표현되어 왔으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명사로서의 쓰임이 보편화되었다. '신앙함'이라는 인간의 의지와 행위를 강조하였었다는 것을 말해주며 이는 신앙이라는 것이 단순히 내적인 신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의지를 통한 신앙의 외적표출까지 포함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기에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갈망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것은 성령에 의해 지속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사랑의 역사 안에서 소망과 능력을 일으키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내면에 확신을 일으키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내면에 확신을 일으키는 것이다. 기독교 신앙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로 고백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 친밀한 사람의 관계 안에서 그 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목적과 의미를 두며 결국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타인을 돕고 타인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기독교인으로서 신앙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만의 현세 혹은 내세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돕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채워주는 것임을 이해할 수 있다. 신앙이란 모든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요 그러기에 선천적인 경향이다. 신앙 없이는 인간은 살 수 없으며 심지어 무신론자에게도 신앙이라는 현상은 실재한다. 모든 인간은 의미를 찾기 위해서 어떤 가치의 중심에 자신을 맡기거나 어떤 이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는 모습을 가지며 이를 통하여서만 의미를 발견한다. 신앙은 관계적인 성격을 지닌다. 궁극적 실재와의 관계로서의 신앙은 결코 개인적이거나 수직적이지만은 않다. 신앙에는 항상 주체와 객체가 있으며 또 이를 묶어주는 객관적인 가치와 힘이 있다. 신앙은 능동적인 앎으로서 이해된다. 신앙의 지적인 차원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지는 이 부분에서는 신앙이 인간의 경험을 알아내고 분석하는 행위로 설명된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인간의 삶으로부터 의미를 만들어내는 앎의 가치와 혹은 앎의 구조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매일의 삶을 궁극적 환경에서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케 하며 그 과정에 있어서 논리나 이성보다는 상상력에 의존한다. 상상력에 의한 이미지는 우리의 삶을 형성하며 움직여가며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상상력의 주된 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성숙은 정신적, 물리적 변화로서 질적인 본성의 변화로 간주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점점 커지거나 점점 영리해지거나 점점 무거워지거나 하는 물리적, 외적, 가시적 변화 뿐 아니라 정신적, 내적, 비가시적 변화를 이룬다. 정신적, 내적, 비가시적 변화는 질적 본성의 변화로서 단순한 외적, 가시적 변화를 다룰 수 있는 복합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성인이 되어서도 어린아이와 같은 사고와 행동을 지닌 사람 역시 미숙한 자라 하며, 성인으로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알고 올바른 행동으로 옮길 줄 알 때 비로소 성숙한 자라 불리우는 것처럼 성숙의 가치는 질적인 본성의 변화에 있다고 하겠다.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게 정립되어 있어서 모든 것이 그 관계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성숙한 종교성은 잘 발달된 판별력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성찰적인 경향과 자기 비평적인 측면이 포함된다. 판별력과 함께 동기에서 역동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어서 더 이상 충동이나 두려움, 죄책감과 같은 갈등에 지배받지 않으며 이기적인 관심을 넘어서는 목적의 성취를 위하여 그러한 갈등이나 충동들을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다. 성숙한 신앙은 도덕적인 행위에 있어서 일관성을 추구한다. 신앙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언제나 실제적인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매 순간 개인의 사고와 선택과 행위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행위와 연결될 수 밖에 없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여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고 섬기며 그 안에서 자기의 완성을 이루어 가는 주체의식과 자기 책임 의식이 있다. 기독교인이 지향해야 할 성숙 인격은 예수의 경고와 같이 허식을 멀리하고 자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중요한 존재로 간주하고, 그를 관심과 호의를 가지고 수용할 수 있으며 실제로 선을 도모하므로 건전한 관계, 이웃사랑의 관계를 실현한다. 기독교인이 이루어야 할 인격을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개인을 자기중심적인 삶의 목표와 성향에서 벗

어나 그리스도와 이웃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모든 삶 속에서, 지금 여기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항상 삶의 목표를 향해 일관성과 통일성이 결여되지 않고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그리고 창조적인 자세를 갖춘 자이다. 성숙한 인격자는 남을 원망하거나 타인의 고통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타인에게 적대감을 갖거나 그를 비판하고 미워하지 않고, 완전한 덕을 소유하신 예수처럼 언제나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다. 그리스도인의 덕은 그것을 추구하는 소박한 기질만으로 불충분하고 그 기질을 이끄는 강한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성숙한 인격자는 확신과 그 확신을 실천할 용기를 아울러 소유한 사람이다.

인간을 한 인격체라고 하는 의미는 독립적인 개체의 통합이라는 말이 아니라 절대 분할할 수 없는 통합체라는 뜻이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지만 도저히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존재이다. 이것들은 서로 영향을 주며 영향을 받는 상호연관이 되어 있으며 또한 상호의존적이다. 영적 존재인 우리는 또한 당연히 정신 사회적인 존재이다. 살아있다는 것은 노력하고 소원하고 갈망하고 사랑하는 것이며, 관계속의 인간은 생각하고 느끼고 활동하는 상호작용의 존재이다. 이는 각자의 개성이 인정되고 개발되며 관계있는 타인들과의 지역사회 안에서 자기의 주체를 찾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조화 속에서 살기를 갈망하는 복잡한 개체들이다. 우리는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영적이며 정신 사회적인 인간은 또한 생리적인 존재이다. 유대의 기독교사상에서는 신체가 지극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구약 성서의 저자들은 인체의 해부학적인 부분이 인간의 영적, 도덕적, 충동을 나타낸다고 생각했으며, 생리적인 기능은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으로 믿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신자의 육체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취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육체는 전체적인 인간을 볼 수 있게 하는 표현이다. 육체를 통해서 우리는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양상 즉 신체적, 정신사회적, 그리고 영적인 것 등 각각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다. 병환은 인간의 육체, 정신, 영혼 뿐만 아니라 전체로서의 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간호는 전체로서의 유기체적인 인간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인간의 통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의 전체적인 면과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인간은 그의 가치와 주체성을 발견하고 타인을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신체적, 정신사회적, 영적으로 지음 받은 통합된 유기체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요구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해할 때 충족시킬 수 있다. 인간의 요구에 대한 성서적 이해의 초점은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는 영적 요구가 있다는 것이다. 인간에게서 표현되는 영적 요구는 대체로 자기 존재에 관한 의문이나, 자기에게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의미를 알고 싶은 것 등이다. 인간은 자기 존재의 통합성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갖는다. 인간의 영적 안녕은 개인의 신앙 유무와 상관없이 인간의 궁극적 관심사가 되는 것으로서 자기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타인 그리고 신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관심을 주고 받으며, 자신과 타인을 용서하고 용서를 받고자 하는 영적 기본요구가 있는데, 이는 곧 신과의 개인적이고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이러한 영적 요구가 충족될 수 있고, 이러한 영적 기본요구들이 충족될 때는 개인의 안녕감과 온전함을 성취할 수 있게 되고 이 3가지 중 어느 한가지라도 상실하거나 부족할

때는 영적 지지를 필요로 하게 된다고 하였다.

간호란 모든 인간에게 보다 건강한 삶을 유지시키고 특히 약한 자와 병든 자들에게는 보다 온전한 생명, 온전한 삶이 유지되도록 돕기 위하여 성장과 발달을 촉진시키는 행위라고 설명할 수 있다. 영적 간호는 기독교적 신앙에 기초하여 모든 간호대상자가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를 갖도록 돕는 일련의 간호행위를 말하며, 이는 간호대상자의 안녕과 온전함을 유지시키는데 목적이 있고 기독의료인과 간호대상자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인격적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을 갖는다. 영적 간호는 개인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으며, 신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필요한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영적 고통을 최대한 감소시키고 영적 안녕 상태를 유지,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모든 환자가 받아야 할 기본 권리 중 하나이며, 임종환자를 위한 영적 간호중재는 더욱 중요하다고 하였다. 인간이 질병이나 생의 위기상황, 즉 죽음을 직면하게 되면 그 누구보다도 높은 영적 요구를 지니게 되므로 임종환자를 간호할 때 환자가 경험하는 영적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영적 요구를 파악하여 영적 안녕을 유지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하였다. 영적 간호는 인간 중심적인 생각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에서 비롯된다. 또한 영적 간호의 주된 목표는 간호대상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돕는 일이다. 간호대상자들이 자신이 영적 존재임을 깨닫는 순간 그가 가진 많은 육체와 정신의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때문이다.

간호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라고 일컬어진다. 만일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싶어하는 요구가 인간의 근본적인 본성이라고 믿는다면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킬 뿐 아니라 전인의 안녕상태를 가져오는 적절한 영적간호는 기독간호사의 임무가 된다. 하지만 환자의 영적요구를 파악하고 충족시켜 주는데 있어서 기독간호사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도와줄 수 없다. 기독간호사가 성숙한 신앙을 소유하였을 때 영적 간호를 수행할 만한 좋은 상태라고 하였다. 기독간호사가 추구해야 할 성숙한 신앙이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고 섬기며 그 안에서 자기의 완성을 이루어 가는 주체 의식과 자기 책임 의식이 있으며, 허식을 멀리하고 자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중요한 존재로 간주하고 그를 관심과 호의를 가지고 수용할 수 있으며 실제적으로 선을 도모하므로 건전한 관계, 이웃 사랑의 관계를 실천하며 그리스도를 알아가므로 자기중심적인 삶의 목표와 성향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와 이웃으로 향하게 된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모든 삶 속에서 지금-여기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항상 삶의 목표를 향해 일관성과 통일성이 결여되지 않고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그리고 창조적인 자세를 갖춘 자이다. 성숙한 인격자는 남을 원망하거나 타인의 고통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타인에게 적대감을 갖거나 그를 비판하고 미워하지 않고, 완전한 덕을 소유하신 예수처럼 언제나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다고 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한 신앙의 성숙함은 바로 기독간호사들이 갖추어야 할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다.

질병 중에 간호대상자들은 영적인 일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한다고 한다. 또한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간호대상자에게 영적 요구가 있다고 인식했는가에 대한 조사에서 영적요구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간호사들이 영적간호를 수행하지 않은 이유는 영적 요구의 충족은 간호사의 일이라기보다 전문 목회자의 일이라고 인식한 때문으로 나타났으며, 우리 간호사들은 일에 쫓겨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고 진정으로 필요한 간호를 제공하지 못했었다. 간호사들이 간호대상자의 영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영적 간호를 해야 하는 이유는, 간호가 그 대상을 인간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데 있다. 그리고 간호하는 대상은 몸만 가진 물체이거나 정신만 가진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싶어 하는 육체와 영혼이 상호 작용하는 유기적 총체로서의 인간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 요구가 인간의 근본적인 본성이라고 믿는다면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킬 뿐 아니라 전인의 안녕을 가져오는 적절한 영적간호는 기독교간호사의 일차적인 임무가 된다. 그러므로 질병을 가진 간호대상자를 효과적으로 돕는 길은 간호대상자들의 육체의 일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간호대상자들은 영적 요구를 가지고 있고 영적 간호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병 중에 있는 간호대상자에게 기독교를 알려주고, 기독교에 관심만 있는 사람에게는 구체적으로 기독교의 본질과 함께 신앙인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며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의 관계를 깨닫게 해주며, 기독교인에게는 질병 중에서도 믿음의 성숙함을 위한 지적, 감정적인 노력을 하도록 도와주고 지지해주는 영적 간호가 성숙한 믿음의 기독교간호사들에 의해 병원의 간호 현장에 적용되어질 때 간호는 인간을 살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질 것이다.

최근 몇세기 동안 영성은 일반적으로 종교의 구성요소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이래로는 대중적인 의미가 바뀌어 이제는 영성이 더 넓은 개념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의미의 변화는 종교성과 영성의 중복된 측면을 복잡하게 인식하여 건강을 목적으로 한 연구를 진행할 때 개념과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결국 연구자들은 영성을 그들의 문화적, 철학적 전통에 기초로 한 종교적이거나 세속적 기반으로 개념화하여 제한된 개념으로 이해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영성의 개념적 구조가 인간과 자연,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더욱 확대되었다. 서양에서는 일반적으로 영성을 정의할 때, 기독교적 관점에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그러나 비기독교적인 동양의 관점에서 바라본 영성은 불교, 도교 및 뉴에이지와 같이 하나님이 없는 숭배, 고통과 불행을 참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기도 한다. 영성은 이처럼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의 내재된 본성이자 회복과 치유의 가장 강력한 자원이며, 영적 안녕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신과 자신, 이웃, 환경과의 관계에서 조화된 삶을 영위하는 총체적으로 건강한 상태로 정의된다. 즉, 대상자의 영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 영적 간호를 통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도록 도움으로써 영적 안녕 상태와 전인적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

인간의 영성에 대해 탐구한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영성의 선행요인은 영이며, 이는 천성적으로 인간에게 존재하는 본질과 같은 것으로서 활력을 주는 힘, 인격을 통합하는 힘, 절대자와 연결시키는 근원 등, 기능으로서의 의미가 있고, 인간 실존의 기본구조인 신, 자신, 타인, 사회/환경과의 관계에서 인간에게 내재된 영이 촉매기능을 할 때 영성이 발현되고, 인간 내, 인간 간, 인간 초월적 관계로 영향을 미치는 역동력이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한편, 기독교적 영성 개념은 ‘하나님’ 혹은 ‘주’가 곧 영으로 묘사되고, 하나님은 인간의 창조주로서 천지의 주재이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로 인간 존재의 근원으로 설명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영성 체계를 갖고 있다. 즉, 기독교적 영성의 실현은 인간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식하고, 자기 생명과 존재의 본질 상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관계 유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

영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영이 사람의 전체적인 것을 통합하고 활기를 돋게 하는 삶의 방향과 질서를 제공하고, 몸이나 정신 속에 함께 통합되어 깊이 생각하게 하고, 인내와 자기 절제를 통해 기분을 조절하며, 마음의 평정을 찾게 할 수 있고, 신체의 반응을 안정시키며 회복시키는 힘을 발휘하며, 영은 신체적 장애나 고통을 초월하게 하여 정서적, 영적 건강과 성장을 경험하게 한다. 영성이 마음과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쁨이나 위기와 같은 삶의 사건에 의해 인간의 본성적인 힘 혹은 '씨앗'이 자극되는데 신으로부터 받은 선물인 성령의 힘과 인간의 영이 융합하여 당면해 있는 상황을 검토하고 진실을 알려는 의식의 확대가 시작되며, 영적 에너지를 통해 사고과정에 긍정적 영향을 받게 될 때 마음이 안정되며 이로 인해 몸은 더욱 영양이 풍부해지고 안녕을 유지하게 된다.

오래전부터 간호이론가들은 영적 간호를 간호대상자의 기본요구를 충족시키는 차원으로 다루어질 것을 주장해왔고, 영적 간호는 간호의 책임 영역이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미국의 건강관리기관 승인단체의 규정, 미국간호사협회의 간호 강령 그리고 국제간호협회의 간호 강령 등에는 영적 간호 수행을 간호의 의무조항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실무 현장의 영적 간호 실태는 종교인 의뢰에 의존하거나 중재를 기피하는 모호한 상태에 처해있는 실정이고, 영성 개념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 이론적 틀의 부족, 영적 간호에 대한 간호사의 기술 부족과 역할 혼돈 등의 장애 요인으로 인해 여전히 경시되고 있는데, 환자의 신앙과 간호사에 대한 신뢰가 환자와 가족들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 대다수의 여론이고, 영성이 건강에 미치는 역동성을 고려한다면 개념 정의의 불일치로 인해 영적 간호중재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영적 간호중재에 대한 간호사의 책임은 계속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영적 간호중재는 간호제공자가 대상자의 영적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대상자의 영성을 우선적으로 존중하면서 상호 영감을 교류하고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며, 영적 간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간호제공자 자신의 영적 신념과 가치관이 분명해야 하고, 두 사람 간의 신뢰, 지지체계, 개인 신앙에 대한 존중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간호제공자는 대상자의 환경에 속하며, 대상자의 영적 안녕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상자의 반응에 유의하고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간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인간 개념에 의하면 오감(촉각, 미각, 청각, 시각, 후각)을 통해 세상과 접하고 사는 몸과 감정, 지성, 도덕심, 의지를 통해 자의식과 인격을 갖게 하는 마음, 그리고 신과의 관계를 의식하는 잠재적 본성으로서 삶의 모든 영역에 고루 영향을 미치는 영 등의 세 영역이 상호관계 속에서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역동적으로 기능하는 총체적 존재로 설명하였다. 특히 인간의 영은 전체적으로 인간을 통합시키는 매우 실제적인 감각인데, 이는 신 중심의 인간 전체 영역의 내적 조화 혹은 평안, 의미 있는 건강, 평화를 이루도록 증진시키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영성은 영에 대한 자신의 인식으로서 초월적이면서도 인간적인 존재로서의 신을 의식하고, 사랑, 의미, 소망, 아름다움, 진리 등의 궁극적 가치를 추구하게 하며, 신, 자신, 타인, 환경과의 관계에서 사랑, 용서, 믿음을 표현하고, 그로 인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인식하는 자기 존재의 핵심이라고 설명하였다. 모든 인간은 의미와 목적, 사랑과 관계, 용서, 희망의 영적 요구가 존재하고, 영적 요구가 충족될 때 비로소 영적 평안감을 가지며, 이는 심리적, 신체적 차원에도 영향을 미쳐 총체적 차원의 안녕을 증진하는 통합 효과를 달성한다.

인간의 영성 성장은 신, 자신, 타인, 사회/환경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초월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는 수평적 역동 과정과 자기가 인식한 절대자와의 관계성이 더욱 친밀해지는 수직적 역동 과

정의 두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건강할 때나 병이 났을 때나 일생 동안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런데 영성 성장에 앞서 요구되는 것은 초월적 가치와 절대자에 대한 자신의 믿음인데, 이 믿음은 수직적, 수평적 관계의 영성 성장에 관여하고, 삶의 사건에 부딪쳐서 변화하고 성장하며, 믿음이 성장하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어진 삶의 의미를 찾아 도전하고 삶의 영원한 가치를 쫓아 고통에 굴하지 않는 삶을 보인다. 그러므로 질병 혹은 위기에 처해있는 대상자의 총체적 안녕을 회복,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내재된 영의 힘을 발휘하도록 지지하는 것은 간호로서 의의가 있고, 영성을 성장시킴으로써 총체적 통합을 이끌어내는 것이 영적 간호중재의 초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상자 자신이 인정하는 절대자에 대한 인식과 초월적 가치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영적 간호의 핵심이 있고, 수직적, 수평적 관계성을 증진하기 위해 의미와 목적, 사랑과 관계, 용서, 희망의 영적 요구들을 종교적 지지와 실존적 지지를 통해 충족시키는 것이 영적 간호중재의 기본 틀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영적 간호중재는 간호대상자의 영성에 맞도록 간호제공자의 영성과 영적지지 기술이 준비되었을 때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기독교 대상자를 접근할 때는 기독교 영성을 가진 간호제공자가 기독교 영성에 근거해 직접 중재할 때 보다 효과적이라고 본다.

영적 간호의 속성은 자신의 치료적 사용, 영적 관점의 탐색, 의미 중심의 치료적 개입, 영적 간호 환경 조성 등으로 나타나는 간호의 독특한 측면이다. 또한 간호사는 경청과 공감적 대화로 의사소통하며 대상자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도록 도와줌으로써 영적 안녕 상태를 촉진할 수 있다. 간호사가 이러한 영적 간호를 제공할 때 영성에 대한 인식이 증진되고, 환자의 건강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평가하여 궁극적으로 환자 치료 회복을 촉진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처럼 영성의 맥락을 포함한 총체적인 돌봄이 요구되면서 간호의 질 향상에 있어 영성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특히, 노인, 암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졌다. 그러나 여전히 영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 치유과정에서 영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영성은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질병을 가진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대상자의 영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간호현장 및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영적 간호중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영성은 모든 인간의 내재된 본성이자 회복과 치유의 가장 강력한 자원이므로 영적 간호를 통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도록 도움으로써 대상자의 영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고, 영적 안녕 상태와 건강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

심리 영성 중재는 심리치료에 영적 요소를 통합하여 개인의 정신 건강 및 영성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중재기법으로, 의미중심 정신요법, 다학제적 영성 프로그램 등이 있다. 의미중심 정신요법은 빅터 프랭클의 의미 이론을 기반으로 암 투병 과정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을 통해 암 환자가 죽음에 직면할 때 삶의 의미와 평안함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한 중재로써 영적 안녕감, 삶의 의미, 믿음, 정신건강, 삶의 질은 향상시키고, 우울증, 절망, 신체 불편감을 감소시켰을 뿐 아니라 2개월 후의 추적 관찰에서도 그 효과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 건강 증진 영성 중재는 정신건강 중재에 영성의 요소를 통합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인간의 정신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중재기법이며,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사회 적응 능력을 증진시켜 삶의 질과 행복을 추구하는 중재를 의미한다. 자기 초월 영성 중재는 자기초월이론에 따라 인생의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경계를 다차원적으로 확대하는 자기초월과정을 통해 건강과 안녕의 상태로 나아가도록 하는 중재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대학생 대상 영성 증진 중재의 목적은 긍정적인 자아개념 정립과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여 실존적 공허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인간의 인지, 정서, 행동을 영성의 잠재적 요인으로 보고, 인지적 요인은 개인이 절대자와 관련지어 생각하고 믿는 것, 정서적 요인은 개인이 절대자와 관련지어 경험하는 느낌이나 감정, 행동적 요인은 개인이 절대자와 관련지어 행동하는 성향으로 정의하였다. 영성 상담 중재는 전화를 통한 개별 식이 상담 접근법과 영적 상담 접근법의 효과성을 비교 검증한 연구가 있었으며, 식이 상담 접근은 사회 인지 이론의 틀을 활용하였고, 긍정적 사고 및 신체상, 자가 모니터링, 시간 관리, 사회적 지원에 관한 주제가 포함되어 있다.

영성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영적 명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두통, 불안의 감소가 나타났으며,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종교 및 영성 프로그램을 메타분석한 결과 종교성과 영성은 자가 보고된 신체건강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영성기반 중재를 체계적으로 문헌고찰 한 연구에서 마음 챙김 명상, 요가 등의 영성 기반 중재를 받은 이후, 스트레스, 불안 및 우울이 좋아지고, 신경 면역학적 표지자의 호전을 보여 심리적, 신체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나타났다. 암환자를 대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영성 프로그램을 고찰한 연구에서는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삶의 질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지속된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대상을 제한하지 않은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에서 종교 및 영성 중재가 통증과 체중을 감소시키고, 건강 행동을 촉진하여 신체적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는 결과도 나타났다. 이는 암환자나 모든 대상군에서 종교 및 영성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신체적, 정신적 측면에 긍정적 효과를 가졌고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성 프로그램의 방법에는 인지행동치료, 대인관계 치료 등 전통적 치료적 접근, 기도나 묵상 등 예배 참여, 명상, 시청각 교육 등이 있었으며, 영성 프로그램의 내용으로는 기도, 영성 개념 교육, 마음 속의 소리 듣기, 하나님의 사랑 받아들이기, 하나님에 대한 믿음 고취시키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최근의 영성 프로그램은 보다 다차원적이고 통합적인 측면에서 영적 안녕을 도모하려는 중재법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환자군에서부터 의료인, 더 나아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참고문헌

1. 윤매옥 (2011), 말기환자를 돌보는 기독교간호사의 삶의 의미와 영적간호수행. 신앙과 학문, 16(2), 147-171.
2. 백성희 (2003), 기독교간호사의 성숙한 신앙과 영적 간호 수행에 관한 연구. 호남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 장인순, 고미숙 (2022), 기독교간호대학생의 신앙성숙, 소명의식, 진로정체감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경북간호과학지, 26(2).
4. 이선화 (2009), 임상간호사의 영적 안녕과 간호업무수행.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 이현주 (2004), 말기 암환자의 영성 체형 :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6. 정정숙 (2005), 영적 간호중재가 말기 암환자의 영적 안녕, 우울, 불안 및 통증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7. 박종선 (2008), 암환자와 가족의 호스피스 인식과 간호요구도 조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 옥성득 (2012), 초기 개신교 간호와 간호교육의 정체성. 한국기독교와 역사, 36.